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함

[롬 16:1-2]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비비**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비**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었다. ‘일꾼’이라는 **원어(디아코노스)**는 ‘집사 직분’을 뜻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봉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초대 교회가 여자들에게 집사 직분을 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여성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여러 면에서 참여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였다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비비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은 그가 직접 로마를 방문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비비 자매는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비비’(포이베) [‘밝게 빛나는’]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가 이방인이었음을 나타내는 것 같다. 옛 시인들은 달을 **포이베**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고 주 안에서 ‘자매’가 되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다(엡 2:19). 비비는 주 안에서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또 주의 일에 참여하는 봉사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들이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에 힘써야 할 자들이며(딤후 2:14) 또 힘쓰고 있는 자들이다.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롬 12:10) 영접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교회의 충성된 봉사자들에게는 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언행이다(엡 4:29).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비**를 도와주라”고 부탁한다. 그것은 그가 거기에 머물 때에 거처할 방과 음식 등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본다. 바

울은 비비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말한다. ‘보호자’라는 헬리어(**프로스타티스**)는 ‘보호자, 후원자, 돕는 자’라는 뜻이다. 비비는 바울이 부탁한 일을 위해 로마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소개하며 그를 영접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3-5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아가야(전통사본)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브리스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다. 이들 부부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았을 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행 18:2-3). 그들은 지금, 아마 글라우디오가 죽었든지 혹은 그 칙령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 있는 것 같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함께 주의 복음사역에 힘썼던 믿음 좋은 부부이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는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을 만났다. 세상은 선과 악, 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의 싸움터이다. 고린도에서도 그는 유대인들의 대적을 당하였었다(행 18:12). 그런데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바울의 목숨이 위태했을 때 그를 보호하거나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바울의 생명의 은인들이었다. 그러므로 바울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을 아끼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아굴라 부부의 신앙과 행위에 감사하고 있었다.

또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집을 교회의 집회 장소로 제공하였고 성도들은 거기에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처음에 독립된 건물이 없었고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모였었다. 실상,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외형적 조직이 아니고 단순히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

리킨다.

에베네도는 아가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곧 처음 구원 얻은 자이었다. 고린도전서 16:15에는 스테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열매로 언급되어 있다. 에베네도는 처음 구원 얻은 자이었고 스테바나의 집은 처음 구원 얻은 가정이었든지, 혹은 에베네도가 스테바나의 가족 중 처음 믿은 자이었을 것이다.

[6-9절] 너희를 우리를(전통사본)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들을 언급하였다기보다는 자기의 복음사역을 위해 많이 수고한 자들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전도자들의 일을 도우며 그들을 섬긴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마리아 같은 여자도 있었다.

또 바울은 자기 친척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언급하였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들이었고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들이었다.

오늘 본문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6번(본장에는 7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한 번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다. 모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10-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아리스도블로에게 속한 자들에게 문안했으나 아리스도블로 자신에게는 문안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죽었거나 아직 믿지 않은 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믿음 안에 있었으므로 문안하였을 것이다. 나깃수의 경우도 그런 것 같다. 나깃수는, 수에토니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큰 호의를 받은 자인데 매우 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믿는 이들

은 매우 악한 사람의 가정 속에도 있을 수 있다. 그들에게 고통도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빛이 될 것이다.

[12-16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올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¹⁾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가 주 안에서 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했다. 또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는 표현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암시가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자신이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문안하라’는 말을 17번이나 사용했다. 문안은 성도의 사랑의 교제의 한 표현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므로 서로 문안해야 하고 서로의 바른 신앙생활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다(요 15:5). 그것은 우리가 항상 그를 의지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켰다고 본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영접하고 서로 문안해야 한다. 우리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영접해야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서로 나누며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는 자들로서 서로 영접하고 서로 문안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뱀뱀같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보호하며 돕는 자가 필요하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하였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협력하였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을 집회 장소

1)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의 인사법으로 성도의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타낸다고 봄. 고전 16:20; 고후 13:11; 살전 5:26; 벧전 5:14에도 나옴.

로 제공하였고 또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으려 하였다. 어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많은 이들이 주의 일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였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만나와 메추라기

[출 16:1-3]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나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 즉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떡을 것이 부족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하였다.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던 것 같다. 사람은 식량이 부족할 때 불평하기 쉬운 것 같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기적으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겠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원망하였다.

[4-5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제6일에는 그들이 다른 날의 두 배를 거두게 하셔서 그 다음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6-8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은 저녁에 메추라기를 얻을 것이며(8, 12, 13절) 아침에 만나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실상 하나님을 향해 한 것이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신다.

[9-12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아셨다. 그는 그들의 믿음 없이 내뱉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다 들으셨고 근심하셨고 불쾌하게 여기셨지만, 그들의 필요대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13-16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었으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만나이었다. 그것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나?” 하고 서로에게 말했다. “이것이 무엇이나?”는 원어(만 후)는 “그것이 만나이다”라고도 번역된다(KJV). 그러나 ‘만나’라는 원어는 아람어로 ‘무엇’이라는 뜻이며, 그래서 우리말처럼 번역하기도 한다(NASB, NIV). 이와 같이,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나?”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인다. ‘오멜’은 부피의 단위로 약 2.2리터이다.

[17-2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항상 얻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침까지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겼다.

[21-24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이면 그것이 스러졌다라. . . .

이스라엘 회중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만나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이면 그것이 녹았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양식 곧 한 사람에 두 오멜씩 거두었다. 안식일은 사람이 모든 일상적 일을 쉬는 휴식의 날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다(막 2:27). 그 날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고 그를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에 모세의 명대로 만나를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25-30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 . .

제6일에 갑절로 거둔 만나를 제7일까지 먹어야 했으나, 백성 중 어떤 이들은 제7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시나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 명하셨다.

[31-36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깻갓[고수풀](coriander) 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주신 그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깻갓(coriander)[고수풀]의 씨와 같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했다.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었다. 오늘날 단위로 말

하면, 오멜은 약 2.2리터이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 즉 법궤 안 십계명 두 돌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출애굽기 16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들은 이 점에서 부족했다. 본장에는 ‘원망’ 혹은 ‘원망하다’는 말이 7번 나온다(2, 7, 7, 8, 8, 9, 12절). 본문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여호와를 향해 한 것이라고 말한다(8절). 또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고 네 번이나 말한다(7, 8, 9, 12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는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주셨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자이셨다. 그는 그들에게 지비하셨고 은혜로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다(23-30절). 안식일 준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였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켜야 하며 그 계명 안에 공적 예배의 날 즉 안식일을 지키는 의무도 포함된다. 신약 성도는 주일을 온종일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하며 또 육신의 휴식도 취한다.

수요일 설교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

[사 29:1-2]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 . .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獅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으뜸 되는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그 도시는 다윗 왕이 진 치고 수도로 삼은 성이었다. 해마다 절기들이 되면 그 성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을 괴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네가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는 말씀에서 ‘아리엘’은 ‘번제단 화로’라는 말(아리엘)을 연상시킨다. 두 단어의 발음은 비슷하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피가

쏟아지고 불붙는 번제단 화로같이 될 것을 암시한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때 살륙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러지고 불같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3-24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러 진을 치며 . . .

5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은 해석상 어려움이 있고 유력한 주석가들도 견해가 나뉜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내리실 징벌도 선언하신 말씀이라고 본다.

9-12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실 것을 보이는 것 같다. 그 선지자들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어두움을 주신 것이었다. 17-24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인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자 같은 예루살렘 성이라도 번제단 화로같이 피흘림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형식적인 종교 의식은 헛된 것이었다. 그들의 모든 교만은 낮춰질 것이다. 죄를 품고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헌금은 헛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외식의 죄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영적 소경들이었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다. 우리는 모든 외식의 죄를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령과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다(요 4:23-24).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달려 있다. 무지하고 무감각했던 그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바른 교훈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의 긍휼의 섭리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고 의와 거룩의 열매 맺는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구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